

IMF시대에 우리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과제

I.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대우경제연구소 분석 보고

○ 개 황

— 전자산업은 '98년에 IMF의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이 높고 원화절하 등 수출여건이 나쁘지 않아 기업이 이에 적극 노력한다면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매출 20% 정도 성장도 가능)

- 특소세 및 기타 세율 인상 등으로 가전제품의 국내판매는 극도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 사무기기 내수도 기업들

의 설비투자 축소, 연기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의 내수는 정부 부분에서 재정지출 삭감으로 감소가 예상, 민간부문의 수요는 그 저변이 넓어 어느 정도 성장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당초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99년말까지 시행키로 하였으나 IMF 긴급자금지원 조건으로 '99년 6월말까지로 폐지 시한이 앞당겨진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 전자산업도 규제완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화되어 경쟁열위 기업의 매각, 합병, 퇴출이 불가피해 사업구조조정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과 산업에 영향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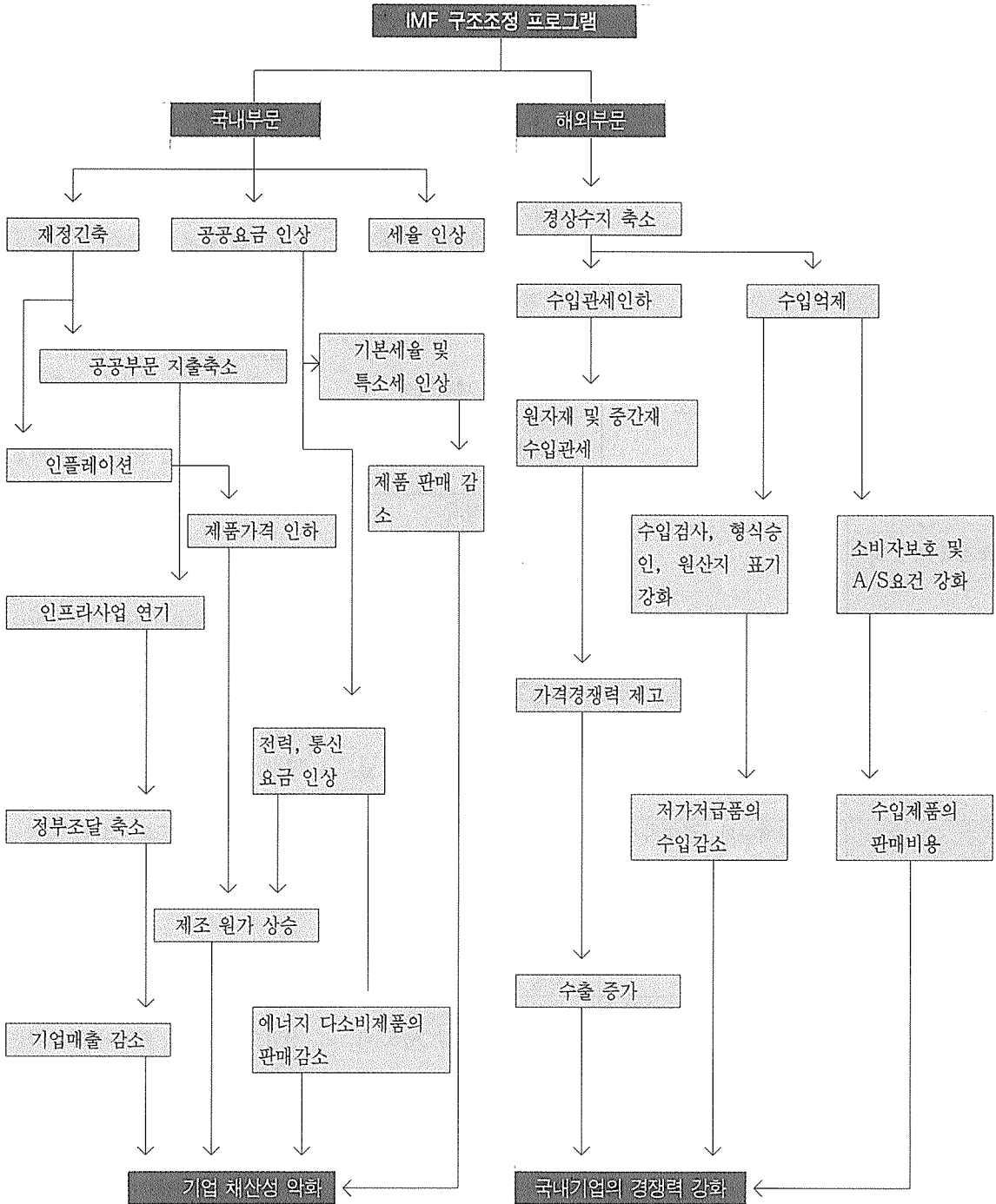
-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및 철폐요구로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간 경쟁이 촉진

- 이에 따라 취약한 사업과 기업은 시장에서 철회가 불가피

— '98년에 수출은 26.9%, 내

구 분	수출(백만불)			시판(10억원)		
	'97	'98	증감율(%)	'97	'98	증감율(%)
가정용전자	7,020	7,700	9.6	3,400	3,000	△ 11.8
산업용전자	10,780	14,150	31.3	5,800	7,000	21.3
전자부품	25,660	33,280	29.7	6,900	8,000	15.9
합 계	43,460	55,130	26.9	16,100	18,000	11.8

〈전자산업의 영향 흐름도〉



○ 장·단기 정책별 전자산업에의 영향

－ 단기정책

구 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공공요금 인상	－ 에너지 저효율의 수입 가전제품 수요감소	－ 에너지 다소비제품(냉장고, 에어컨)의 국내 소비위축
공산품 세율 인상		－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 및 수출경쟁력 약화
수입관세 인하	－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 고성능 설비도입 촉진	－ 수입대체 품목의 국내 산업기반 상실 － 주력 및 비주력 수출산업간의 산업지원 불균형 확대
수입선다변화제 조기해제	－ 밀수시장의 축소	－ 해제품목의 일본수입확대 － 중소전문 메이커의 경영난 － 계열대리점의 유통비중 감소
특소세 대상 확대		－ 내수시장 위축 － 성장제품의 시장형성 지연 및 차세대 유망제품의 개발 포기

－ 장기정책

구 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금리 인상	－ 수익성 위주의 선별투자 계기	－ 투자진흥중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 － 한계 수익사업 시장 퇴출 조기화
공공부문 지출 축소	－ 외산제품의 국내시장공제 약화 － PC부문의 수출경쟁력 약화 － 신수요 발굴의 구조조정 기회	－ 교환기 및 PC업체의 채산성 악화 － EDCF 원조자금의 추기소 － 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차질
경상수지 적자 축소	－ 수입가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수단 강구	－ 통상마찰의 가능성 － 국내 메이커의 A/S 비용부담 증가
인플레이 억제	－ 공산품의 가격인상 억제 － 제조 구매력 증가	－ 정부조달 품목의 최저가격 낙찰제 － 전속대리점 체제의 규제 강화

수는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삼성경제연구소분석보고

○ 산업별 영향

－ 내수불황과 시장의 조기개방에 따라 가전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다.

· 7대제품(TV, VT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청소기)을 제외한 소형가전 및 음향기기는 상당 부분이 정리(포기, 중소기업 이관, 해외이전 등)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화 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컴퓨터, SI, S/W업계의 경영실적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 컴퓨터업계 : 성장세 이던 서버 및 사무용 컴퓨터의 판매가 크게 감소

· 시스템통합(SI)업계 : 매년40% 정도의 고성장세를 구가해 왔으나, 저가 입찰 등 과다경쟁이 불가피하다.

－ 반도체는 자동차와 더불어 미·일의 견제가 가장 심한 산업으로,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DRAM 분야의 신규투자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 DRAM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는 “반도체 시장의 공

○ 산업별 전망

	성장률(%)	'97(동향)	성장률	'98(전망)
가 전	내수:-9.5 수출:-15.4	- 보급률 포화와 수입 증가로 내수판매 침체 - 동구의 수입규제, 일본제품 경쟁력 강화, 해외생산분의 현지공급 확대로 수출감소	내수:-10.6 수출: 5.3	- 소득수준 하락과 사회분위기 침체로 내수가 크게 감소 -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증가(동남아 수출은 침체)
정보통신	내수:36.6 수출:18.1	- 이동통신기기 등 내수의 폭발적 증가 성장 견인 - 이동통신기기 및 컴퓨터 본체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회복	내수:19.0 수출:13.9	- 경기위축에 따라 내수 및 생산 증가율은 둔화 - 수출호조, 수입감소(99년이후 수입 증가 우려)
반도체	수출:2.5	- 공급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대만 업체의 확대로 공급과잉 지속 - 16MD에 이어 64MD도 큰폭의 가격하락	수출:10.0	- 64MD 수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나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세 지속 - 설비투자 축소 불가피

선진국 수요증가
원화 약세

- 가전제품
- 내수침체 심화
- 특소세 인상
- 소비심리 위축
- 수출은 해외생산으로 큰폭 증가 곤란
- 백색가전제품 수출여건 개선
- 기타제품은 해외생산화로 수출증대 곤란

- 컴퓨터
- 내수는 '97년 수준 유지
- 보화사회 진전은 지속
- 가격하락으로 노트PC수요 증가

-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
- 세계수요 증대
- 원화약세

급 과잉을 초래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금융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 과잉투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억제되어 전략적 투자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업계의 DRAM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 12인치 웨이퍼, 256MD 등 차세대제품은 98년부터 본격 투자가 필요하다.

• 신규참여 희망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성사가 불

투명하다.

다. 산업연구원 분석 보고

○ 산업별 영향

- 통신기기

- 내수증가율 대폭 둔화
- 신규시설 투자 축소
- 소비심리 위축

• 수출은 큰폭으로 증가

- 반도체

- 내수도 어느 정도 증가
- 생산주종품 구조 전환
- 내수비중이 낮음

- 수출 큰폭 증가
- 기종의 세대 교체
- 세계 수요 증대

- 전자부품

- 완제품 수요감퇴 : 내수소폭 둔화
- 세계수요 증대 : 수출은 전년수준 유지

라. 종합 분석 보고(본회)

○ 전자산업의 영향요소

IMF 프로그램 골격	전자산업의 영향 요소
-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축운용 · 금리제한제 폐지 · 환율제한제 폐지 	- 금리상승→채산성 악화 - 외환수급 불안→환차손 막대, 수출여건은 다소 개선
-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확대 · 지출축소 	- 특소세 등 세율인상 } 수요감퇴, - 통신, 정보 등의 투자 } 개발지연 사업 축소
- 금융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 정비 · 부실채권 정리 · 감독기능 강화 · 금융시장 개방 	- 금융기관 대출억제→유동자금 확보곤란 - 금융시장 개방→차차 금융시장 경쟁 촉진으로 이용 용이
- 무역 및 자본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선다변화 품목 축소, 폐지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 상업차관 허용 	- 일본상품 국내진출 확대, 경쟁이 불가피 (대형유통점 확산 가능성) · 유망유치산업(정보, 통신, 방송, S/W, 유통 등) - 상업차관 허용은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이 문제
- 기업 및 민간부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기업의 경영방식개선 (상호지급 보증제 등) · 자금과다 차입 개선 · 보조금 및 정책금융제 축소, 폐지 	- 정부의 개발자금지원 축소 - 한계사업 정리 용이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통계정보 공개 	

○ 경영여건 전망

시 장

- 국내 : 불황 심화→과당경쟁

→투매 등으로 채산성 악화 우려
수입선 다변화 해제, 대형유통점 확산 등으로 국내생산 판매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 원화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자 금

- 수요 :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 개발자금 및 유동자금 확보에 초점
 - 조달 : 신용 및 자금시장 검색과 고금리로 곤란, 해외자금 조달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조기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재조달

- 국내 : 수입보다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유류, 전기료 등)
 - 수입 : 환차손으로 막대한 부담→국산 구매방안 강구

인 력

- 신규투자 억제, 한계사업 정리 등으로 수요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 등을 통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술개발

- 사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개발의 수요는 한층 더 증대되고 시장위축, 자금조달 곤란 등으로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산성

- 환차손, 고금리, 물가인상 등으로 제조원가 상승

- 시장불황, 경쟁격화 등으로 가격인상 곤란

- 매출신장도 둔화되어 채산성 악화를 가중

시설투자

- 시장불황, 자금조달 곤란 등으로 축소조정 불가피, 단 전략품목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한계사업 정리로 시설이양(M & A, 매각)이 활발할 전망이다.

○ 생산 및 판매전망

- 전자산업 개황 -

생산

· 당초 약 61조원, 13.4% 성장 → 약 58조원, 7.8% 성장

· 시장별로는 수출이 10.4% 이나 국내판매가 7.2% 감소

· 부문별로는 컴퓨터, 통신 등이 10% 이상 성장, 가전이 2.3% 감소, 부품이 3.2%의 저성장

수출

· 당초 약 475억불, 12.3% 증가 → 약 466억불, 10.4% 증가

· 외화절하로 수출여건 다소 개선, 외환불안, 신흥시장인 동남아 구매력 감퇴

· 정보통신, 전자응용분야 10% 이상 증가, 가전 0.4% 증가,

주종인 반도체 9.0% 증가

시 판

· 당초 약 13조원, 16.8% 증가 → 약 10조원, 7.2% 감소

· 구매력감퇴, 정부 및 산업의 투자위축, 세율인상 등으로 가격 상승

· 컴퓨터 4.1% 증가외에 전부 문 감소

수 입

· 당초 약 319억불, 7.7% 증가 → 약 305억불, 2.8% 증가

· 설비투자 축소, 원자재 수입 감소, 원화절하로 수입가 상승

· 반도체 15.3% 증가, 가전, 컴퓨터, 통신 등 감소

○ 산업별 수요(수출 및 시판)전망

- 가전산업 -

(품목별로 별표참조)

수 출

· 약 67억불, 0.4% 증가로서 당초 전망치와 거의 변동없음

· TV, VCR 등 전자기기(청색가전)의 해외생산으로 원래부터 수출의 큰 기대는 곤란하다.

· 당초는 원화절하, 월드컴특수 등으로 다소 기대하였으나, 대외신인도 저하, 가격인하 요구로 증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시 판

· 당초 약 3조4천억원, 6.6% 감소 → 약 3조1천억원, 13.2% 감소, 불황심화

· 보급포화, 경기불황으로 당초부터 감소세 예상, 특소세인상

〈전자산업개황〉

구 분	단 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생 산	10억불W	53,474	60,630	57,652	8.4	13.4	7.8
수 출	백만\$	42,248	47,462	46,623	2.5	12.3	10.4
시 판	10억W	10,901	12,734	10,120	3.1	16.8	-7.2
수 입	백만\$	29,659	31,931	30,501	7.6	7.7	2.8

〈가전산업〉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6,692	6,727	6,719	-14.6	0.5	0.4
시판(10억원)	3,639	3,398	3,159	-8.7	-6.6	-13.2

주) 시판은 내수중 생산자 국내판매분(이하 같음)

등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 대형유통점 확산 등으로 생산, 시판은 더욱 위축 될 것이다.

— 컴퓨터산업 —

(품목별로는 별표참조)

수출

- 당초 약 68억불, 12.2% 증가→약 72억불, 18.5% 증가

- 원화절하로 중대형컴퓨터역수출, PC의 SKD방식 수출여건 호조

- 윈도우 '98 기종출시, HDD, CD-ROM 드라이브 등 수출증대 지속

- 주종인 모니터는 가격하락세가 지속되어 다소 감소 할 것이다.

시판

- 당초 약 2조4천억원, 4.8% 증가→4.1% 증가로 다소 둔화

- 민간소비 감퇴, 정부지출 축소로 내수가 위축될 것이다.

- 그러나 정보화부문은 투자 우선적이어서 그 영향이 적고 노트북 PC대체가 진행되어 그 둔화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통신기기산업 —

(품목별로는 별표 참조)

수출

- 당초 약 33억불, 20.1% 증가→약 32억불, 17.0% 증가로 다소 둔화

- CDMA장비, 위성방송수신기 등 수요증대, 원화절하 영향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FAX는 EU로부터 반덤핑제소, EDCF 자금지원 감소예상 등으로 다소둔화 될 것이다.

시판

- 당초 약 4조2천억원, 66.1% 증가→약 2조3천억원, 7.0% 감소로 반전

- 신규통신서비스용 장비 수요감퇴, 통신기반시설 투자축소, 연기가 예상되고 이동단말기도 소비심리 위축, 극심한 경쟁으로 수요기대가 곤란하다.

- 성장주도품목인 이동전화단말기(PCS, 휴대폰 등)은 핵심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화절하로 가격인상 불가피하고 그 경우 수요

는 한층 더 정체가 될 것이다.

— 전자응용기기산업 —

(의료, 표시, 계측기, 경보기 등)

수출

- 당초 약 12억불, 2.5% 감소→약 17억불, 34.0% 증가

- 전광판, 초음파진단기, 경보기 등의 세계수요가 지속적 증대 될 것이다.

- 원화절하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내수위축으로 기업의 시장개척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판

- 당초 18.0% 성장→5.0% 감소로 반전

- 전반적인 국내 수요위축(설비투자, 민간소비)으로 기업의 전략도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컴퓨터 산업〉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6,078	6,820	7,203	18.3	12.2	18.5
시판(10억원)	2,281	2,391	2,375	7.4	4.8	4.1

－ 반도체산업－

(품목별로는 별표 참조)

수출

· 당초 약 204억불, 14.9% 증가→약 193억불, 9.0% 증가로 둔화
 · 원화절하 영향, DSP 공장신축 등으로 조립수출은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종인 DRAM은 세대교체(16M→64M)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 전자부품 산업

(품목별로는 별표참조)

수출

· 당초 약 90억불, 16.4% 증가→약 85억불, 9.5% 증가로 둔화
 · 원화절하로 수출여건 다소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라 주종품인 CRT, 자기테이프의 가격하락, 튜너 등의 생산기지 이전 등도 다소 둔화 될 것이다.

시판

· 당초 약 2조원, 17.2% 증가→약 1조6천억원 7.5% 감소세로 반전
 · 전자기기 생산저조로 전반적인 수요가 감퇴되고
 · 원자재 수입가격상승에 부품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악화, 생산업체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통신기기산업〉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2,743	3,295	3,210	18.4	20.1	17.0
시판(10억원)	2,519	4,183	2,342	25.0	66.1	-7.0

〈전자응용기기산업〉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1,247	1,216	1,672	32.0	-2.5	34.0
시판(10억원)	133	517	126	7.0	18.0	-5.0

〈반도체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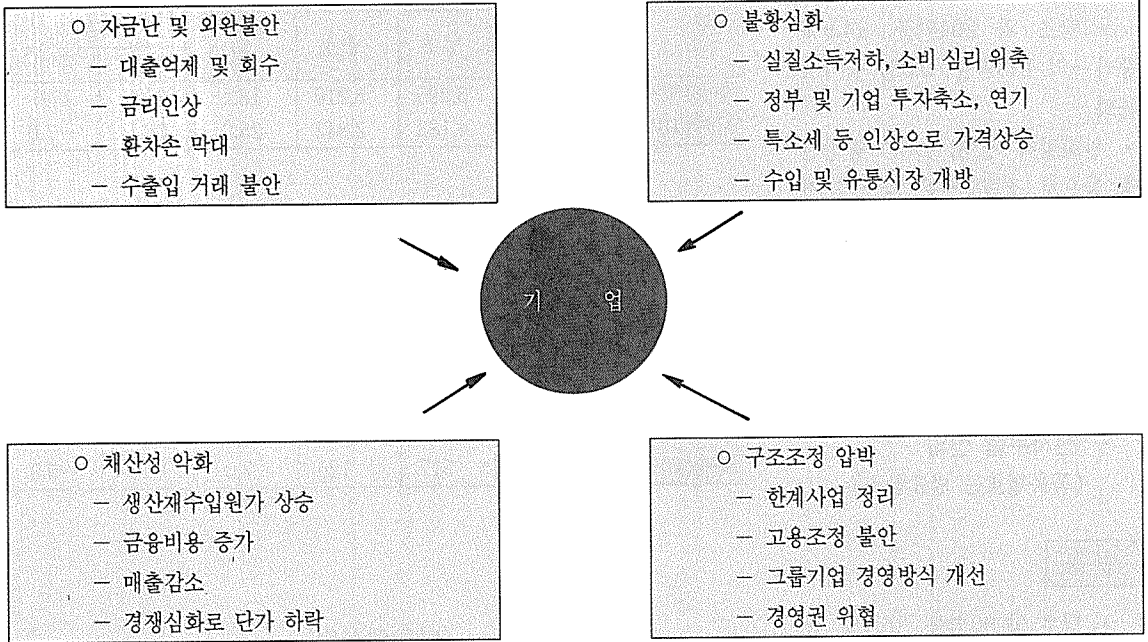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17,735	20,377	19,331	-0.6	14.9	9.0
시판(10억원)	557	528	479	-13.5	-5.2	-14.0

〈전자부품산업〉

구 분	'97(추정)	'98(전망)		증감율(%)		
		당초	수정	'97	'98	
					당초	수정
수출(백만불)	7,752	9,027	8,489	8.5	16.4	9.5
시판(10억원)	1,772	2,076	1,639	5.4	17.2	-7.5

II 전자산업의 대응과제와 방향

가. IMF시대의 기업부담



나. IMF시대의 성공적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

○ 우리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회복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 대외 : 외환 수급불안 해소(환율 안정)

- 대내 :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자금 원활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불안의 최소화 및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사전방향제시 및 단계적 추진
- 위기경제극복 : 부처간 유기적 협력

○ 기업의 총력적 자구 노력
- 한계사업의 정리 등 사업구조의 재구축
- 시장경제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의 혁신

○ 소비자 및 근로자들도 고통분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 소비생활의 합리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다. 기업경영과제

1) 생존을 위한 유동자금 확보대책 강구

○ 단기자금 조달원인 중금사 영업정지, 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대출중지 및 조기회수로 유동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현금흐름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경색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비율이상 보유

○ 현금회수가 용이한 사업 우선, 유망한 사업도 현금확보가 불투명하면 포기해야 한다.

- 재무제표상의 수익보다 현금흐름을 중시

○ 과잉재고, 유유설비 매각은 원화절하 이용, 해외시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2) 불황타개, 수출확대에 총력 강구

○ 국내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보이는 반면 수출에서는 원화절하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만큼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경주, 수출증대로 내수 침체를 만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일본의 경우도 내수부진을 수출확대로 만회하는 전략 용이)

○ 이를 위해 국내외 판매조직을 재구축, 해외전문 전시회 참가, 해외선전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종전에 경쟁력 약화로 수출을 중단했던 품목도 일시적으로 수출채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품(원자재) 및 기자재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대체 국산화 노력을 강화, 부품 수입의존율이 높은 품목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혁신

○ 자금난과 고금리, 막대한 환차손 등으로 원가가 상승되고 극심한 불황으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판매가는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 고금리에 대비 기업의 해외신인도를 제고, 해외차입을 적극 추진하고 차입금 감축을 위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등 직접금융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 과잉재고, 유유설비 매각은 원화절하 이용, 해외시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 환차손 경감을 위해 부품 및 기자재 수입을 최대한 억제, 국산 대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유희, 불용자산의 처분은 물론 사용중인 고정자산까지도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여야 한다.

○ 경영 전부문의 제비용을 전면 재검토, 가능한 통합, 축소하고 인력 및 조직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 최대한 고효율, 슬림화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사업구조 조정 단행

○ 한계적자사업, 공급초과사업, 기술낙후사업, 내수의존 사업 등 문제 사업이 전체 사업영위에 결정적 악영향을 초래

○ 공급축소, 수출전환 등 우선 내부조정

○ 내부조정이 불가한 구조적

문제 사업은 사업교환, M&A, 매각, 이관, 사내 창업 방법을 총동원하여 과감한 조정을 단행,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 생산중단 등 사업포기가 불가피하다.

5) 노사화합 및 대내외 신용 확보 노력 강화

○ 자금난, 시장불황, 고용불안, 신용경색 등이 예고 되고 있는바 투명하고 정직하며 솔선하는 경영을 통해 안으로는 노사를 일체화 하고 밖으로는 고객, 은행, 거래선으로 부터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 시장불황으로 경쟁이 치열화 됨에 따라 고객 및 거래선에 대한 품질 및 납기의 준수로 신뢰 확보

- 자금난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정보 제공을 신용 확보

- 인력조정, 전사적 경영합리화에 따라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투명경영 등을 통해 노사화합 도모

6)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 사업구조의 조정, 경영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유희 인력 발생은 필연

○ 기업은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인력의 재배치,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최후 수단인 해고는 최소화

○ 최악의 사태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전직을 위한 재교육,

전직알선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

○ 한번 채용후 종신 고용개념의 경직된 인력채용제도를 수시채용 제도로 유연화 시킴으로서 해고된 근로자들도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일본의 경우도 종신고용 개념에서 최근 수시채용의 유연성을 도입, 시행)

7) 전문 경영체제의 구축

○ 경영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그룹 경영체제의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 기업별, 사업별로 독립경영 체제를 확립,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함 재무제표작성, 국제 기준의 회계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단,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또, 그룹기업이 아닌 개별 기업도 사업 합리화를 통해 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집중력을 강화해야 한다.

8) 경영권 방어 수단도 강구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26%→50%→55%)되고 국내기업의 최대 주주지분이 낮게 분포되어 있어 경영권 방어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주식상호 보유, 우호세력 확보, 지분비율 조정 등이 그 대안이다.(일본도 자본 시장개방 과정에서 기업간 주식 상호 보유를 강화)

○ 역력이 없는 국내기업이 방어 수단만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하기는 곤란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호조건으로 매각 한후 차선책으로 우호적 M&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9) 기업간 협력을 통한 경영 합리화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 시장불황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채산성이 악화되고, 사업구조의 조정 등에서 동종 또는 수급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은 그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 생산자 단체를 통해 시장, 기술 등 각종산업 정보의 상호교환, 규격의 표준화, 해외시장의 공동개척, 고가장비 상호이용 등 사내 경영합리화 차원을 넘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경영 합리화 사업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는 품목별, 기능별로 업계 협력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기업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10)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속시켜 재도약 기반을 구축

○ 이상의 사업이 단기적 시각에서 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그 이후를 내다본 중기적 시각에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현위기의 근본원인은 사업구조가 취약한데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가야 한다.

○ 따라서 투자축소, 경영합리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상품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 정책과제

1) 대외 신인도제고 등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화

○ 대외신인도 제고 및 추가자금의 조기도입 등을 통해 외환수급을 원활히 하여 적정환율로 안정화

2)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자금시장을 원활화 하고 금리의 하향 조정

○ 조기에 금융구조의 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운용을 정상화 함으로서 자금시장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금리의 하향조정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인력활용의 극대화, 실업대책의 획기적 강화
- 국민적 공감대 조성 (노사정 협의)

4) 위기극복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규 기업부담제도를 유보

- 폐가전 제품의 재자원화 촉진법 제정
 - 폐기물 예치금(kg/38원)→재자원화 시설투자에 활용
-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2,500원/대)폐지
- 리콜 및 제조물책임법(PL법)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 유보

5) 정보가전 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 우수대학의 전자, 정보, 통신 관련학과 정원확대
- 첨단전자 정보산업 연구단지의 조성
- 정보가전제품의 특소세 폐지 및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
- 위성디지털 TV 방송의 시험을 제고 및 디지털 TV 방송 일정의 단축

6)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규제의 완화

- 전기용품 형식승인제의 민간 이양시기 단축
-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 자율화
- 품질보증 기간의 법적 규제(2년)
- 품질 비교평가제 등

기업경쟁에 의한 자율화

본회 대책반

- 기능
 - 업계 긴급요인으로 파악→정부(통산부) 상황실
 -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업계에 정보제공
 - 대응방안 수립, 업계 및 정부에 제공
 - 업계공동 사업 수립, 추진
- 편성
 - 총괄반장 : 상무 박재인 (555-6172)
 - 가전산업반장 : 이사 김태곤 (554-4126)
 - 정보산업반장 : 부장 이상근 (557-2417)
 - 부품산업반장 : 부장 양희웅 (554-4146)